

장성군 '황룡강 숨은 가치 찾기' 머리 맞댄다

장성을 대표하는 황룡강의 숨겨진 가치를 발굴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장성군은 황룡강을 중심으로 1년 365일 노란꽃이 피는 '엘로우시티(Yellow-City)'를 만드는 데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장성군은 "오는 18일 장성문예회관에서 장성의 젓줄인 황룡강을 미래 먹거리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황룡강에 생명을 불어넣는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토론회는 지난해 72만명 방문이라는 초대박을 터뜨린 황룡강 '장성가를노란꽃잔치'의 성공요인을 전문적으로 분석

18일 문예회관서 대토론회

노란꽃잔치 성공 요인 분석

개발 방향·이용 전략 모색

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엘로우시티'의 발원지인 황룡강의 잠재된 가치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황룡강 프로젝트'의 성공에 필요한 구체적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토론회는 광주전남연구원 주관으로 열리며, 전남대 송인성 명예교수를 좌장

으로 4명의 전문가가 황룡강의 개발 방향에 대해 생태대전, 엘로우시티, 지역경제, 거버넌스 등 4가지 주제로 토론에 나선다. 광주전남연구원 김종일 박사는 '황룡강의 지속가능한 이용 전략과 과제'를 통해 생태대전 기능을 보존하면서 개발시킬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 신홍경 전 가천대 교수는 '엘로우시티 브랜드마케팅 방안'을 주제로 '엘로우시티'의 발원지로 황룡강의 의미를 되짚고 이를 통한 마케팅 방안을 발표한다.

3주제를 맡은 광주전남연구원 조상필 박사는 '황룡강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이어 광주대 김병완 교수는 '황룡강

르네상스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을 각각 발표해 주민과 지역상권과의 연계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전문가들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들과 청중이 함께하는 개방형 토론이 예정돼 있으며, '황룡강'의 숨은 가치를 군민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지난해 5만 군민과 함께 '황룡강 르네상스 시대'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전문가와 군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 숨겨져 있던 황룡강의 가치를 찾는 특별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최형식(오른쪽) 담양군수는 지난 10일 LH본사에서 '귀농·귀촌 주택단지 리츠 시범사업' 시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담양 남산리에 귀농·귀촌 주택 60호 건설 郡, LH와 '주택단지 리츠 시범사업' 시행 업무협약

담양군은 12일 "지난 10일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서 LH와 '귀농·귀촌 주택단지 리츠 시범사업' 시행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귀농·귀촌 주택단지 리츠 시범사업은 인구유입을 통한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담양읍 남산리 일원에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에게 분양 및 임대될 건축면적 85㎡ 규모의 60호 단독주택단지가 건설된다.

지난해 LH에서는 전국 160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후보지를 공모, 담양군을 포함한 8개 시·군을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했다.

협약에 따라 담양군은 토지확보 협의,

인허가 및 기반시설 지원, 귀농·귀촌 생활지원 등의 업무를, LH는 시범사업에 걸친 공모, 사업계획 수립 및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LH에서는 또 올 상반기 사업주조사 공모를 통해 금융주조사 및 건설사를 선정하고,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해 하반기 토지 매수 및 착공에 나서 2018년부터는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담양군은 앞으로 귀농·귀촌 주택단지 리츠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발전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제2호 귀농·귀촌 주택단지 리츠 사업 공모에도 참가할 방침이다. /담양=정재근기자 jgg@

담양군 둘째아이 출산 50만원 추가 지원

담양군은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둘째아 이상은 첫돌 때 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담양군은 2015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1.59명으로 출산율이 저조한 현실을 감안해 둘째아이 출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출생신고 후 첫돌까지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둘째아 가정에는 기존 40만원의 지원금에 50만원을 추가해 90만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첫째아 70만원

(출생 30만원, 첫돌 40만원), 둘째아 120만원(출생 30만원, 첫돌 90만원), 셋째아 이상 170만원(출생 80만원, 첫돌 90만원)으로 장려금이 확대·지원된다.

담양군은 또 올해부터 둘째아 이상 가정의 산모에 대해서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도 기존 10일에서 최대 20일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40%이하) 가정에 지원되던 기저귀 및 조제분유도 만 2세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담양=정재근기자 jgg@

담양 죽녹원 2015년 이어 '한국관광 100선' 연속 선정

담양군 죽녹원이 올해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돼 2015년에 이어 2회 연속 한국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관광 100선은 2013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공동으로 2년마다 국내 대표 관광지 100곳을

선정해 알리는 사업이다.

세계질 푸른 대나무 정원 담양 죽녹원은 한옥 체험장, 봉황루 전망대, 추월당 한옥카페 등이 함께 조성돼 쉼터 기능과 문화 예술적인 기능이 복합된 공간이다. /담양=정재근기자 jgg@



담양농협 '사랑의 연탄' 배달 담양농협 박이환 조합장 등 농협직원 20여명은 최근 심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3000장의 연탄을 구매해 10가구에 전달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gg@

담양군 내달부터 하수도 요금 23% 인상

비용 대비 사용료 현실화

1t당 평균 102원 올라

담양군은 "처리원가 대비 부족한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오는 2월부터 하수도 요금을 23.6% 상향한다"고 12일 밝혔다.

담양지역 하수도 처리단가가 1톤당 1173원인데 비해 사용료는 톤당 233원으로, 사용요금 현실화율이 19.8%(전국 평균 38.3%)에 불과해 재정 건전성을 악화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담양군은 하수도 요금을 가정용(1~20톤)의 경우 현행 톤당 170원에서 210원으로, 일반용(1~100톤)은 톤당 290원에서 360원, 대중탕(1~500톤)은 톤당 290원에서 360원, 산업용(1톤당)은 150원에서 190원으로 올렸다.

전체적으로는 1톤당 평균 102원이 인상되며, 가정용의 경우 월 20톤 사용 기준으로 올해 2월 고지분부터 사용요금이 3400원에서 4200원으로 800원 인상된다.

또 마을 하수처리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나 광역

및 지방 상수도 급수 구역은 올해부터 부과 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2월 고지분부터 사용료가 고지된다.

한편 담양군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에 대해서는 현행 하수도요금 10% 감면을 유지하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고정비율 2%의 연체료 산정방식을 개선해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료를 산정할 방침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요금 인상으로 늘어나는 수입은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양=정재근기자 jgg@

급, 싸고 좋은 땅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30-47번지 외 13필지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 토지 6000평 / 계획관리지역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가능
- 담양온천 1분 거리
-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펜션 가든 온천 호텔 등등 모든업종 가능
- 개발 후 70억 이상 가치 있음
- 급매 - 17억 (일시불)
- 문의 H. 010-3605-5000

장/단기, 투자가치 좋습니다.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32번지 외 6필지 (전남 노인요양원 바로 옆)
- 토지 6256평 / 건물 256평, 계획관리지역
- 백운동 20분, 남평 10분, 강변도시에서 5분
- 현재 양어장 운영중
- 인근 전원주택 단지 평당 70만원 씩
- 전원주택, 캠핑장, 펜션, 가든, 식당, 요양원 등 모든업종 가능
- 매매 - 18억 7600만원 (평당 30만원)
- 주인직매 H.010-3605-5000